

부캐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사회적지지, 여가만족이 행복감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박지윤¹ · 이철원²

¹연세대학교 강사 · ²연세대학교 교수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rious Leisure, Social Support, Leisure Satisfaction of Persona on Happi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Park, Ji-Yoon¹ · Lee, Chul-Won²

¹⁻²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rious leisure, social support,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among adults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through an alternative identity (bukae, or "secondary character"). A total of 371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employing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serious leisure promoted happiness through social support and leisure satisfaction, with leisure satisfaction emerging as a key predictor of both happi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In contrast,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influence consumption behavior, suggesting that consumption in alternative-identity-based leisure is more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 satisfaction, personal preferences, and self-expression than to social relationship. Additionally,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and leisur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empirically demonstrate how leisure participation grounded in multiple identities influences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and consumption behavior in contemporary society where diverse identities are increasingly common. However, as the sample was limited to individuals engaging in leisure through alternative identitie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is constrained. Future research should compare participants with and without alternative personas,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types and consumption motives, and explore the long-term psychological effects of leisure participation through longitudinal studies.

Key words : serious leisure, social support,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consumption behavior, alternative identity(bukae)

주요어 :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 부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Chul-Won

E-mail: wakeford@yonsei.ac.kr

Received: January, 26, 2026 Revised: March, 21, 2026 Accepted: March, 24, 20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여가는 단순한 휴식과 회복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인의 여가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국내 여가소비 지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전체 소비지출의 약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24)의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여가가 개인의 삶과 가치 형성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가를 매개로 한 정체성 형성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여가는 개인이 가치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존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상과 구분되는 새로운 자아를 여가 속에서 구현하는 현상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캐(副-character)’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24)에 따르면, 20~40대 성인의 약 67%가 본업과는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부캐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는 현대인이 단일한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자아를 실험하며 표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래 온라인 게임의 보조 캐릭터 개념에서 비롯된 ‘부캐’는 SNS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다중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페르소나(Persona)’에 비견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 여가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부캐’는 개인이 본래의 정체성과 구분되는 또 다른 자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체성으로 정의한다(강민희, 이승우, 2020). 이는 단순한 닉

네임이나 일시적인 가명 사용이 아닌, 본업에서의 자아와 구분된 역할 인식과 지속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정체성과 구분되는 자아를 기반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부캐활동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일정 수준의 헌신과 지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Stebbins(2007)가 제시한 ‘진지한 여가’ 개념과 연결된다. 진지한 여가는 전문성, 지속성, 내적 보상, 정체성 형성의 속성을 지니며 참여자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부캐활동은 특정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여가 참여를 넘어서는 특징을 지니며(하재근, 2021), 이러한 지속성과 몰입은 진지한 여가의 핵심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부캐를 통해 수행되는 여가활동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자기실현의 측면에서 진지한 여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부캐활동은 개인에게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고 자기실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나친 몰입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부캐활동이 긍정적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제공받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진지한 여가가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개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진지한 여가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통해 축적되는 자원으로, 여가 참여의 의미와 지속성을 강화한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소속감과 정체감을 강화하고, 우울감이나 고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여 여가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Cobb, 1976; Thoits, 1982).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여가활동 경험을

정서적 만족으로 이어지게 하며, 이는 ‘여가만족’과 ‘행복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이 기대한 목표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주관적 만족 상태를 의미하며(Knapp, 1976), ‘행복감’은 삶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만족의 총체적 상태를 의미한다(이선희, 정복례, 김순희, 2015).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Dishman, 1985; Morgan & Goldston, 1987).

진지한 여가 참여자에게 소비는 여가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적 요소이다. 이들은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 활동에 몰입하고자 관련 장비나 서비스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자신의 성취감과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김영교, 2022). 여가소비행동은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및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박민규, 박순희, 2008; 정영아, 문숙재, 2009), 이러한 소비는 특히 부캐활동 맥락에서 ‘정체성 구축 소비’와 ‘커뮤니티 중심 소비’로 동시에 나타나는 소비 형태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여가 참여자들은 새로운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관련 상품과 경험에 투자하며, 커뮤니티 내 추천과 정보 공유는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와 가치관 변화는 여가소비 확대를 촉진하였다. 소득 수준 향상, 워라벨 문화 정착, 코로나19 이후 질적 여가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가소비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여가만족은 여가소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에 따라 소비 성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부족한 사회적 관계망은 부정적 소비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은 긍정적 소비 행동을 유도한다(Molinillo, Anaya-Sánchez, & Liébana-Cabanillas, 2020; Wang, Wang, Yao,

Li, & Wang, 2020).

종합하면, 부캐를 기반으로 한 진지한 여가 참여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진지한 여가는 지속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이는 사회적 지지의 형성과 축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활동 자체에서 의미와 성취를 경험하게 되며, 여가만족으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형성된 사회적 지지와 여가만족은 개인의 정서적 안녕 상태인 행복감으로 확장되며, 동시에 이러한 경험은 행동적 차원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소비행동은 개인이 형성한 정체성과 만족을 외부로 표현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장된 행동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소비행동은 단순한 결과 변수가 아니라, 정체성 기반 여가 참여 경험이 외부로 발현되는 실천적 결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진지한 여가를 출발점으로 사회적 지지와 여가만족, 행복감과 소비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캐를 통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진지한 여가와 정서적 결과(여가만족, 행복감 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부캐라는 다중 정체성 맥락에서 정서적 경험이 소비행동과 같은 행동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지한 여가가 사회적 지지와 여가만족을 통해 행복감 및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주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캐 기반 여가 참여가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소비행동으로 확장되는 메커니즘

을 규명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여가활동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는 여가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는 여가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는 소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소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부캐로서 여가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는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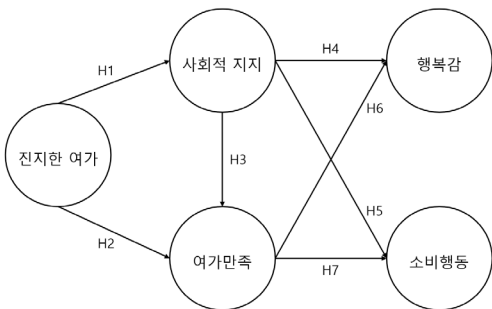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 지적 활동, 자연 및 야외활동 등)을 6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부캐로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후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두 달 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동호회 활동 및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또한, 대상 선정에 있어 본 연구는 Boomsma(1982)의 연구에 의해 산출된 표본수를 고려하여 총 371명의 설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설문 방식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과 할당표본추출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90	51.2
	여자	181	48.8
연령	20대	73	19.7
	30대	79	21.3
	40대	73	19.7
	50대	70	18.9
	60대 이상	76	20.5

부캐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이 행복감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	사무행정 & 관리직	124	33.4
	서비스업	39	10.5
	자영업	17	4.6
	전문직	35	9.4
	프리랜서	60	16.2
	학생	31	8.4
	기타	65	17.5
여가활동 유형	신체적 활동	127	34.2
	사회적 활동	38	10.2
	문화적 활동	160	43.1
	지적 활동	32	8.6
	자연 및 야외 활동	14	3.8
여가활동 참여빈도	주 1회	57	15.4
	주 2회	51	13.7
	주 3회	66	17.8
	주 4회	34	9.2
	주 5회 이상	163	43.9
여가활동 참여시간	1시간 미만	20	5.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58	42.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23	33.2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33	8.9
	4시간 이상	27	10.0
여가활동 참여기간	1년 미만	27	7.3
	1년 이상~2년 미만	41	11.1
	2년 이상~3년 미만	45	12.1
	3년 이상~4년 미만	31	8.4
	4년 이상	227	61.2
합계		371	100

법을 활용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캐로 활동하는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 초기에 스크리닝 문항을 포함하였다. 스크리닝 문항은 응답자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캐활동 참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본업 또는 일상에서의 정체성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자아를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해당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 형태를 가지는지, 활동 과정에서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역할이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응답자만을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직군, 여가활동유형, 여가참여빈도, 여가참여시간,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참여기간까지 총 7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활동유형은 Lutzin & Storey(1973)가 개발하고, 한승엽, 김홍렬, 윤설민 및 장윤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은 구체적으로 신체적 활동(골프, 테니스, 필라테스 등 운동참여), 사회적 활동(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종교활동 등), 문화적 활동(OTT 서비스 구독, 공연 감상 등), 지적 활동(개인적 학습, 지식 습득, 취미활동 등), 자연적 및 야외 활동(캠핑, 차박, 등산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지한 여가는 특정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성, 노력,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정도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Stebbins(1992, 2007)의 진지한 여가의 6가지 척도를 기반으로 김미량(2015)이 수정·보완 및 개발한 한국판 진지한 여가 척도 II(Serious Leisure Scale II: SLS II)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문항 수정은 부캐활동이 지니는 다중 정체성 및 지속적 참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표현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진지한 여가는 이내 4문항, 여가 전문성 4문항, 개인적 노력 4문항, 지속적 혜택 4문항, 여가 정체성 4문항, 독특한 기풍 4문항으로 총 24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캐활동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받는 정서적·정보적·평가적·물질적 자원의 정도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 과정에서 부캐활동 상황에서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반영하도록 문항을 조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된 정도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Yoon & Uysal(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김유겸, 황선환(2017)의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여가만족은 단일요인으로서 4문항(기대수준에 대한 만족도, 투자한 노력과 시간의 가치,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다른 여가활동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행복감은 개인이 전반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긍정 정서와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며, Lyubomirsky &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토대로 정하나(2022)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일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 인생을 즐긴다’, ‘나는 행복한 것이 잘 드러난다’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비행동은 부캐활동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 성향 및 행동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소비행동에 대한 문항은 소비자행동 및 소비패턴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김동호(1996)가 개발한 소비성향 설문 문항을 김종순(2005)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여가소비행동 척도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여가소비행동은 유행·과시적 소비행동 9문항, 합리·이성적 소비행동 6문항으로 나뉘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설문 문항은 여가학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후 연구원 2인으로부터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 역시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사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며(김계수, 2011), 구성개념을 지시하는 측정변수의 단일 차원성과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판별 타당도와 개념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절대 적합지수 중 모형 전반적 적합도 값(χ^2)은 3847.444로 나타났으며, 자유도 값(df)은 2118, TLI=.900, CFI=.907, RMSEA=.047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켰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인 인내 .855, 여가 전문성 .865, 개인적 노력 .887, 지속적 혜택 .817, 여가 정체성 .868, 독특한 기풍 .863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서는 정서적지지 .937, 정보적지지 .927, 평가적지지 .915, 물질적지지 .902로 나타났다. 또, 여가만족 .877, 행

부캐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이 행복감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항목	Estimate	S.E.	CR	AVE	α
인내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한다.	.746	.411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신체적 위험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참여한다.	.750	.523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참고 이겨내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866	.274	.850	.588	.855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활동에 참여하려고 한다.	.742	.487			
여가 전문성	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763	.324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	.823	.256			
	나에게는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	.758	.414	.883	.654	.865
	내 주변 사람들은 여가활동 분야에서 나의 경력을 인정한다.	.804	.318			

복합 .886, 소비행동 중 유행·과시적 소비행동 .871, 합리·이성적 소비행동 .837로 나타났으며, 모두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전체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CR)와 분산추출지수(AVE)는 각각 .7 이상 및 .5 이상으로 산출되어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하위 요인의 신뢰도 값이 .7 이상으로 나타나 Nunnally(1978)가 제시한 수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라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총 37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 프로그램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항목	Estimate	S.E.	CR	AVE	a
개인적 노력	나는 여가활동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812	.292	.904	.702	.887
	나는 여가에 대한 고차원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823	.277			
	나는 여가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806	.258			
	나는 여가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814	.295			
지속적 혜택	여가활동은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준다.	.571	.396	.882	.656	.817
	여가활동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736	.259			
	여가활동 참여는 깊은 성취감을 준다.	.820	.201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다는걸 느낀다.	.788	.273			
여가 정체성	내가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내 삶의 중심에 존재한다.	.721	.433	.880	.648	.868
	내가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일체감을 느낀다.	.803	.289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가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817	.340			
	내가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나를 대표하는 특징이다.	.816	.289			
독특한 기풍	나는 열정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감정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한다.	.779	.353	.879	.645	.863
	나는 나와 함께 열정적으로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동질감을 느낀다.	.805	.305			
	나는 여가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다.	.743	.368			
	나는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	.805	.323			
정서적 지지	나는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777	.330	.949	.730	.937
	나는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806	.237			
	나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정서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811	.261			
	나는 마음을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857	.239			
	나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826	.253			
	나는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851	.220			
	나는 기분 나쁠 때 기분을 이해해주고 전환시켜 주는 사람이 있다.	.854	.221			
정보적 지지	나는 주변에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	.766	.318	.942	.732	.927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	.877	.181			
	나는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	.852	.213			
	나는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	.830	.243			
	나는 문제 원인을 찾는데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781	.299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	.834	.231				

부캐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이 행복감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항목	Estimate	S.E.	CR	AVE	a
평가적 지지	나는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다.	.708	.381	.936	.712	.915
	나는 나를 필요로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822	.24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797	.275			
	나는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832	.255			
	나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	.820	.215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다.	.839	.198			
물질적 지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다.	.728	.499	.896	.593	.902
	나는 내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849	.274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의논해 주는 사람이 있다.	.846	.226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자기의 물건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810	.280			
	나는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31	.659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	.740	.510			
여가 만족	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참여 전(과거)보다 참여 후(지금)의 기대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814	.186	.932	.776	.877
	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투자한 노력과 시간의 가치는 의미있다.	.777	.200			
	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07	.161			
	과거에 참여했던 여가활동과 비교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809	.192			
행복감	일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71	.200	.901	.696	.886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51	.261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 인생을 즐긴다.	.771	.325			
	나는 행복한 것이 잘 드러난다.	.764	.373			
유행·과시적 소비 행동	나는 남들이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여가상품을 갖고 싶어하는 편이다.	.696	.591	.852	.536	.871
	나는 새로운 여가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768	.469			
	나는 유행하는 여가상품이 있으면 곧 따라서 구매하는 편이다.	.824	.398			
	나는 최신 유행 여가상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남이 알아봐주면 즐겁다.	.761	.521			
	나는 주위 사람들의 여가상품을 눈 여겨 보는 편이다.	.740	.512			
합리·이성적 소비 행동	나는 여가활동비를 지출할 때 주위 사람의 조언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많이 참조하는 편이다.	.535	.665	.875	.543	.837
	나는 갖고 싶은 여가상품이 있을 때 상세하게 정보를 모아 살펴본다.	.745	.344			
	나는 의식적으로 여가활동비를 과소비하는 것을 자제하려 노력한다.	.680	.423			
	나는 할인기간을 이용해 여가상품을 구입한다.	.775	.280			
	나는 여가활동비 지출을 계획할 때 수입에 비해 적당하기를 항상 생각한다.	.678	.391			
	나는 구입한 여가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702	.300			

$\chi^2=3847.444$, $df=2118$, $TLI=.900$, $CFI=.907$, $RMSEA=.047$

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여가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 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639로 나타나 Kline (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85보다 낮은 값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특성	1	2	3	4	5
진지한 여가	1				
사회적지지	.363**	1			
여가만족	.603**	.467**	1		
행복감	.432**	.639**	.509**	1	
소비행동	.492**	.221**	.320**	.199**	1

**p<.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적합도 지수는 TLI .931, CFI .941로 나타나, 모두 .9 이상이고, RMSEA는 .070으로 수치가 .08 이하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χ^2	df	TLI	CFI	RMSEA
455.557	162	.931	.941	.070

3.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그리고 행복감과 소비행동 간 각각의 경로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들의 경로들이 나타내는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는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진지한 여가와 사회적 지지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416이며, t값은 6.581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가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592이며, t값은 10.045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가 여가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여가만족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266이며, t값은 6.295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여가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647이며, t값은 10.12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소비행동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035이며, t값은 0.64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부캐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이 행복감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도출하여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여섯째, 여가만족과 행복감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375이며, t값은 5.34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가만족이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일곱째, 여가만족과 소비행동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341이며, t값은 4.067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가만족이 소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 7은 채택되었다.

표 5. 경로분석 결과

H	경로	경로계수	S.E.	t	채택 여부
H1	진지한 여가 → 사회적 지지	.416	.063	6.581***	채택
H2	진지한 여가 → 여가만족	.592	.059	10.045***	채택
H3	사회적 지지 → 여가만족	.266	.042	6.295***	채택
H4	사회적 지지 → 행복감	.647	.064	10.120***	채택
H5	사회적 지지 → 소비행동	.035	.054	.646	기각
H6	여가만족 → 행복감	.375	.070	5.346***	채택
H7	여가만족 → 소비행동	.341	.084	4.067***	채택

*** $p < .001$

4.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신뢰도 구간 95%, 반복 시행 횟수 1,000 회로 수행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95% CI(.069, .173)가 0을 포함하지 않고 p값이 .001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Effect	Estimate	S.E.	95% CI	p
a	.376	.054	(.265, .475)	.002
b	.599	.049	(.493, .685)	.003
c'	.297	.054	(.185, .400)	.002
a*c'	.112	.025	(.069, .173)	.001
c	.711	.039	(.617, .775)	.003

** $p < .01$, *** $p < .001$

a = Direct Effects (진지한 여가 → 사회적 지지)

b = Direct Effects (진지한 여가 → 여가만족)

c' = Direct Effects (사회적 지지 → 여가만족)

a*c' = Indirect Effects (매개효과)

c = Total Effects

CI = Confidence Interval

IV. 논의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6개월 이상 부캐로 참여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부캐활동은 '부캐릭터'의 줄임말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지한 여가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둘째,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진지한 여가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지한 여가활동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지지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Wang & Tian(2024)은 진지한 여가가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성공적 노화와 몰입경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Erik & Koen(2009)과 권기창, 권승숙(2020)은 여가활동이 타인과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자본 축적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성미(2024)와 배소영, 이충기(2019)는 생산적·소비적 여가 모두가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삶의 만족도까지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혀 여가활동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Iwasaki, Zuzanek, & Mannell(2001)은 신체활동 여가가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성은혜, 이한아름, 배소영(2021)은 팬덤활동이 사회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팬덤활동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점은 여가활동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진지한 여가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다양한 맥락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캐활동 맥락에서 진지한 여가 참여가 사회적 지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가 개인의 몰

입과 노력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정체성과 관심을 공유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계 형성과 지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캐활동은 공통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지한 여가 경험이 사회적 지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가 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지한 여가활동이 참여자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자아성취와 몰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여가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지한 여가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지속적인 노력과 성취를 통해 여가 경험의 질을 심화시킨다는 Stebbins의 이론적 관점과 부합하며,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민경일, 이유진, 황선환(2025)은 캠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지한 여가가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종윤, 강신겸, 황선환(2021) 역시 직장인 동호회 참여에서 진지한 여가가 개인적·사회적 여가만족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Tian, Qiu, Lin, Zhou, & Fan(2020)은 마라톤 선수 연구에서, Liu & Yu(201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두 진지한 여가가 여가만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Munusturlar(2016)의 연구에서도 진지한 여가 참여가 제약을 극복하고 심리적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다. 이는 진지한 여가가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여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개인과 사회적 대인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활동은 연령과 집단을 불문하고 여가만족을 향상시키는 핵심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도 부캐활동 맥락에서 진지한 여가가 여가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여가 참여가 단순한 활동 경험을 넘어, 개인이 구성한 다중 정체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만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캐활동은 기존 자아로부터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지한 여가 경험이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여가만족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적 지지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가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이 여가활동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도구적 지지가 여가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범, 김형남(2016)은 사회적 지지가 여가 스포츠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하였으며, 손지영(2018)은 노인 동호회 참여자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여가활동의 흥미를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영준, 심경순(2013)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과 여가만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Liang & Liou(2022)는 일과 여가의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Iwasaki, Coyle, & Shank(2010)는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긍정적인 적응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여가활동 및 부캐활동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가 여가만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캐활동이 개인의 정체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정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지지는 여가 경험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강화하고, 정서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캐활동은 유사한 정체성과 관심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여가 경험의 의미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도구적 지지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예리, 여종일(202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심상신, 김유식(2015)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신뢰 기반의 정서적 교류가 주관적 행복에 기여함을 밝혔다. 또한 오세숙(2011)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Lyubomirsky, Sheldon, & Schkade(2005)는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의 지속성과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im, Kim, Kim, Han, & Nguyen, 2021; Ahmed & Mohamed, 2022).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연령과 여가 맥락에서 행복감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캐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캐활동은 일상과 구분된 자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활동 내 관계는 평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인정과 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부캐활동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균형과 행복을 지지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사회적 지지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소비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심리적·사회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간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소비행동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유맹맹, 임승희(2022)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가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hi, Gong, Yuan, Jiao, & Song(2025) 역시 정서적·재정적 지지가 소비자의 쇼핑 즐거움과

구매의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zi, Haddad, Al-Amad, Rees, & Hajli(2022)는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이 소비자의 긍정적 소비경험과 지속적 소비행동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 자체보다 사회적 배제나 소외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소비행동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결핍이나 관계적 소외 경험이 과시적 소비, 보상적 소비, 충동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영리, 한승희, 2014; 이가, 이경탁, 2024; 이국희, 2018).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존재 여부보다 사회적 배제 경험이 소비행동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활동의 참여 형태와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속감이 강한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팀 기반 소비나 공동구매와 같은 집단적 소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개인 활동이나 소속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행동은 공동체적 목적보다 개인적 만족이나 정체성 표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즉, 사회적 지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소비행동에 다르게 작용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같은 부정적 사회 경험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여가만족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이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이 여가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만족이 삶의 전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임영신, 김매이(2024)는 노년층

을 대상으로 여가참여 목적에 따라 여가만족과 행복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명우, 윤기웅(2022)은 코로나19 전후 여가유형별 분석을 통해 여가시간과 행복감 간의 관계가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Yoo(2022)의 연구에서도 여가만족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Matsumoto, Sato, Asada, & Chiashi(2018)와 Kim, Lee, Kil, Pitas, & Hwang(2025)의 연구에서는 전문화된 여가활동과 장비 접근성이 여가만족과 행복감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나친 전문화와 과도한 여가시간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여가 포만'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만족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환경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참여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장비 대여 및 강습 기회의 확대가 요구되며, 환경적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공 여가시설 확충, 교통 편의성 제고, 비용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복감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경험이 일시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정서적 평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캐활동 맥락에서의 여가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새로운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만족이 자기 인식과 삶의 의미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보다 지속적인 행복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7. 여가만족과 소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이 소비행동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가활동에서 경험하는 만족이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실제 소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wes(1979)는 여가시간의 증가가 소비지출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한성유, 성기환(2011)은 여가만족 수준에 따라 소비행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손양(2024)과 리시양, 리우화양, 오연풍(2024)은 여가만족이 소비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만족은 장소 소비에, 신체적·사회적 만족은 미디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Matte, Fachinelli, Toni, Milan, & Olea(2024) 역시 여가만족이 경험적 소비를 촉진한다고 하였고, 이는 감정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Niu, 2019; Zinck & Newen, 2008). 나아가 Chen & Zhang(2022)은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피트니스 참여자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환경 인식이 여가만족을 높이고, 이것이 소비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만족은 단순한 정서적 충족을 넘어 소비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여가활동에서 형성된 만족은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반영한 소비로 이어지며, 이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연이나 음악 감상과 같은 활동에서 만족을 경험한 개인은 관련 용품이나 콘텐츠 소비를 통해 자기만족과 정체성을 강화한다. 결국 여가만족은 경험적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확장하는 심리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8. 사회적 지지가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 사이에서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지한 여가활동이 개인적 몰입과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여가만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조성미(2024)는 생산적 여가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미숙, 최경희(2022)는 노인의 자기계발, 자원봉사, 사회활동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Leung & Lee(2005)는 사람 중심 및 장소 중심 여가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Lee, Sung, Zhou, & Lee(2018)는 진지한 여가와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매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넘어 삶의 만족과 적응,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심리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진지한 여가가 여가만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핵심 연결고리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개인이 누구와 함께 활동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여가만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는 여가활동의 몰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유도하는 핵심 자원으로, 진지한 여가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캐로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 소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진지한 여가는 사회적 지

지와 여가만족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경로를 형성하였으며, 여가만족은 행복감뿐 아니라 소비행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소비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행동이 사회적 관계보다 개인의 만족감, 취향, 자기표현 욕구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 정체성이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부캐 기반의 여가활동이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 확장과 정서적 만족, 그리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진지한 여가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함으로써, 진지한 여가가 개인의 몰입과 노력뿐 아니라 관계적·정서적 자원을 통해 그 효과가 증폭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정서 중심 구조에서 나아가 소비행동이라는 행동적 결과를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부캐라는 다중 정체성 맥락에서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진지한 여가 이론이 단일 정체성을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대 여가 연구에서 정체성 기반 참여와 그에 따른 정서적·행동적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캐활동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연구를 통해 진지한 여가의 효과를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캐와 부캐 참여자 간의 심리적 경험과 행동 패턴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다중 정체성 기반 여가활동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유형과 소비동기 간의 구체적 관

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소비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부캐와 본캐 간 정체성 변화 과정과 여가활동의 장기적 경과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종단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진지한 여가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민희, 이승우(2020). 멀티 페르소나의 사례와 의미-‘부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9(2), 123-143.
- 권기창, 권승숙(202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255-277.
- 김계수(2011). *조사연구방법론*. 한나래출판사: 서울.
- 김동호(1996). *소비성향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서울시 여성의 소비성향 측정과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 김미량(2015). 진지한여가 척도의 재정립. *한국체육학회지*, 54(2), 313-322.
- 김영교(2022).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용자가 지각한 서비스품질요인이 소비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영리, 한승희(2014). 사회적 배제 경험이 타인과 동일한 제품을 소비하는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4), 555-575.
- 김유겸, 황선환(2017). 등산객의 과시적여가소비가 여가만족을 향상시키는가?. *한국체육학회지*, 56(3), 377-387.
- 김예리, 여종일(202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행복의 관계: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73-100.
- 김종순(2005). *직장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소비성향 유형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종윤, 강신겸, 황선환(2021). 진지한 여가활동이 여가만족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393-420.
- 리시양, 리우화양, 오연풍(2024). 중국 동계스포츠 참여 청소년의 참여동기와 여가만족 및 소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22(2), 731-742.
- 문화체육관광부(2024).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경일, 이유진, 황선환(2025). 캠핑 참여자의 여가 경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및 행동의도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4(1), 167-185.
- 박민규, 박순희(2008). 여자대학생의 여가소비성향 유형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6(2), 83-107.
- 박영준, 심경순(2013).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그리고 사회기술능력과의 인과관계연구. *재활복지*, 17(1), 137-162.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배소영, 이충기(2019). 워킹맘의 온라인 여가로서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과 사회적 지지, 일-가족 전이,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8(4), 113-128.
- 성은혜, 이한아름, 배소영(2021). 신중년 여성의 여가로서의 팬덤활동과 사회적지지, 삶의 의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연구. *관광학연구*

- 구, 45(8), 81-104.
- 손양(2024). 중국 동북지역 스키장의 서비스 품질, 관광만족, 여가만족 및 소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 손지영(2018).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19-331.
- 심상신, 김유식(2015). 퇴직 남성의 여가스포츠 참여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행복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 583-598.
- 오세숙(2011). Do Leisure-generated Social Relationships Contribute to Happiness?.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153-159.
- 유맹맹, 임승희(2022). 사회적 지지와 라이브 커머스 구매의도 관계에서 라포의 매개 역할과 진정성의 조절 역할. *서비스마케팅저널*, 15(1), 37-49.
- 이가, 이경탁(2024). 사회적 배제감과 준사회적 관계가 충동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논집*, 32(2), 104-123.
- 이국희(2018). 사회적 배제가 추천 및 유행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논집*, 26(3), 1-18.
- 이명우, 윤기웅(2022). 여가 유형별 활동 시간이 여가만족도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43(3), 29-55.
- 이미숙, 최경희(2022).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일상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4), 1433-1446.
- 이상범, 김형남(2016).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와 여가만족 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3), 55-67.
- 이선희, 정복례, 김순희(2015).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115-126.
- 임영신, 김매이(2024). 노년기의 여가목적, 여가만족 및 행복: '시간보내기' 여가목적을 중심으로 한 예측요인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8(1), 17-29.
- 정영아, 문숙재(2009). 소비자의 시간자각과 여가 소비행동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4(1), 15-28.
- 정하나(2022). 추구-회피동기 수준에 따른 여가만족,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행복의 관계: 야구동호인을 대상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성미(2024). 노인의 생산적 여가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구조, 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22(1), 181-202.
- 통계청(2024). 2023년 가계동향조사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2024). 2024 캐릭터 이용자 조사.
- 한성유, 성기환(2011).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소비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27-38.
- 한승엽, 김흥렬, 윤설민, 장윤정(2007).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연구-문화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2(3), 323-339.
- 하재근(2021). 부캐, 또 다른 나를 찾다. *지방재정*, 2021(1), 146-151.
- Ahmed, H. A. A. E. K., & Mohamed, B. E. S. (2022). Relationship between morality, happiness, and social support among elderly people. *Middle East Current Psychiatry*, 29(1), 31.
- Bazi, S., Haddad, H., Al-Amad, A. H., Rees, D., & Hajli, N. (2022). Investigating the impact of situational influence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commer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7(1), 104–121.
- Boomsma, A. (1982). The robustness of LISREL against small sample sizes in factor analysis models. *Systems under indirect observation: Causality, structure, prediction*, 149–173.
- Chen, D., & Zhang, B. (2022). A home fitness satisfaction model for Chinese resi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SEM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94722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ishman, R. K. (1985). Medical psychology in exercise and sport. *Med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69(1), 123–143.
- Erik, V. I., & Koen, V. E. (2009). Leisure and social capital. *Leisure Science*, 31(2), 192–206.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wes, D. K. (1979). Leisure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7, 391–403.
- Iwasaki, Y., Coyle, C. P., & Shank, J. W. (2010). Leisure as a context for active living, recovery, health and life quality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in a global context.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5(4), 483–494.
- Iwasaki, Y., Zuzanek, J., & Mannell, R. (2001).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nse of master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hysically active leisure, stress and health. *Leisure/Loisir*, 26(3–4), 257–287.
- Kim, J., Lee, Y., Kil, N., Pitas, N. A., & Hwang, S. (2025).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cross recreation specializ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e case of Korean hikers. *Leisure Sciences*, 47(6), 1179–119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 Kim, J., Kim, J., Kim, Y., Han, A., & Nguyen, M. C. (2021).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to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amo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4(1), 100974.
- Knapp, M. (1976).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596–604.
- Lee, C., Sung, Y. T., Zhou, Y., & Lee, S.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riousness of leisure activities, social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amo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 *Leisure Studies*, 37(2), 197–210.
- Leung, L., & Lee, P. S. (2005). Multiple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The roles of Internet activities, use of new media, social support, and leisure activiti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22(3), 161–180.
- Liang, Y. W., & Liou, Y. C. (2022).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moderating role of

- facilitation. *Leisure Studies*, 41(2), 198–213.
- Liu, H., & Yu, B. (2015). Serious leisure, leisur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 159–174.
- Lutzin, S. G., & Storey, E. H. ed. (1973). Managing municipal leisure services. *Washington D. C.: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25.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Matsumoto, H., Sato, S., Asada, A., & Chiashi, K. (2018).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engagement, affective and cognitive leisure involvement, and subjective happiness: A mediating role of leisure satisfaction. *World Leisure Journal*, 60(2), 111–126.
- Matte, J., Fachinelli, A. C., Toni, D. D., Milan, G. S., & Olea, P. M. (2024).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involvement, voluntary simplicity, leisure satisfaction, and experiential consumption. *Leisure Sciences*, 46(4), 512–531.
- Molinillo, S., Anaya-Sánchez, R., & Liébana-Cabanillas, F. (2020).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factors on customer engagement and its impact on loyalty behaviors toward social commerce web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8, 105980.
- Morgan, W. P., & Goldston, S. N. (1987). *Exercise and mental health*. IL: Human Kinetics.
- Munusturlar, M. A. (2016). Examination of the serious leisure,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Nwsa Academic Journals*, 11(3), 23–38.
- Niu, H. J. (2019). Qualia: touching the inner needs of consumers' hearts.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7(1), 41–51.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d Ed. McGraw-Hill.
- Shi, Y., Gong, J., Yuan, T., Jiao, J., & Song, Y. (2025). WITHDRAWN: The Role of Social Support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in the Context of Live Streaming E-commerce: The Evidence from China.
- Stebbins, R.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Press-MQUP.
- Stebbins, R. 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5–159.
- Tian, H. B., Qiu, Y. J., Lin, Y. Q., Zhou, W. T., & Fan, C. Y. (2020). The role of leisure satisfaction in serious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Chinese marathon runners.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1908.

- Wang, J., & Tian, H. (2024). Serious leisure and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air volleyball players: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flow exper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15*, 1403373.
- Wang, Y., Wang, J., Yao, T., Li, M., & Wang, X. (2020). How does social support promote consumers' engagement in the social commerce community? The mediating effect of consumer involvemen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7*(5), 102272.
- Yoo, J. (2022). Attitude toward leisure, satisfaction with leisure policy, and happines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Scientific Reports, 12*(1), 11723.
- Yoon, Y., & Uysal, M. (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1), 45-56.
- Zinck, A., & Newen, A. (2008). Classifying emotion: a developmental account. *Synthese, 161*, 1-25.